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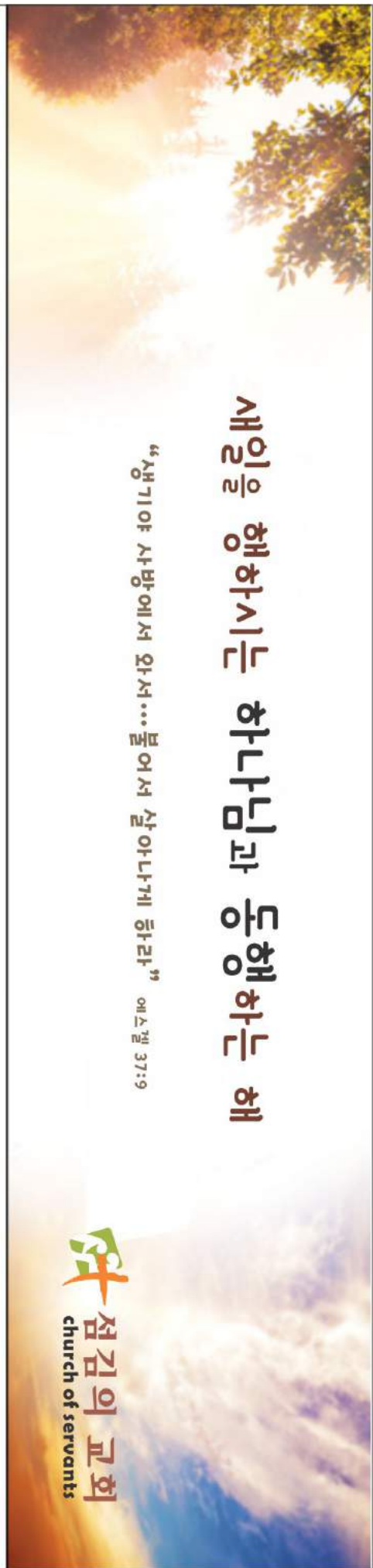
우리는
각양각색의 무리일 뿐이고
각양각색의 무리일 뿐일 수 있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9

새로운 생명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김이 있는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ly 18,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찬 양 / 빛 되신 주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370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찬송 455장)
	봉 헌 / 구 민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252장 - 나의 죄를 씻기는 (통일찬송 184장)
	성경말씀 / 아모스 4:1-15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1:23-2:7

하나님의 능력,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7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삶을 살시다.

-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성도의 사명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선교와 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 설립 6 주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설립 감사예배**과 감사찬교를 위한 수고와 섬김에 감사합니다.
- 일곱째 해 사역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건강한 성도와 가정, 충성하는 사역과 교회,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범사가 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Oikos 모임 다음 주일에 가집니다. 은혜로운 모임이 되도록 준비합시다.
- 고 이현재 전도사 추모예배 23일(금) 11 a.m. / Ridgewood Memorial Park
- CUMC 사역재계 출입과 복도, comon areas 에서는 face mask 착용합니다.
- 2세 신앙교육 방학 중 자녀들의 생활, 학업과 신앙 교육, 그리고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합시다.
- 사역자 일정 김진숙 전도사는 7 월 18(주)부터 25(주)일까지 2 주간 Alaska 주의 Conference 를 참여합니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쓰시다.
-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치유, 회복, 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7월의 사역 -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8-24) 선교주일(25) 선교 주간(25-31)

♥7월 평일축하♥ 이광호(14) 오정은(14) 김태성(15) 홍현근(18) 구은강(28)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7/18	7/25	8/1	8/8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7/18	7/25	8/1	8/8
	구민집사/최선운집사		홍현근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7월		8월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관유를 바른 후 지극히 거룩하게 되다 / 출애굽기 40:1-38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만든 후, 새 해 첫 날 성막을 세우고 질서 있게 기구들을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관유를 발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다. 가나안을 향한 도정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행진했고 생활했다.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과 언약궤를 행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실제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교회와 성도에게도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다. 인공적인 관유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이다. 섬김의 교회 일곱 번째 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 아모스 4:4-15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져야한다.

무엇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가?

진실하지 않은 예배와 이상숭배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침체와 무력함으로부터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찢리고 불편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 아모스 4:4-15

이스라엘 주변 여섯 나라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고난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이는 큰 위로나 큰 도전과 두려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히 징계하시며 철저히 훈육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벰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고 하신다. 벰엘은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후, 제단을 쌓은 곳,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한 곳, 사무엘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곳이었다.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처럼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 인도와 은혜는 잊고, 벰엘과 길갈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곳에서 드러지는 매일 아침(절기) 번제, (구제)십일조, (감사)수은제나 (자원)낙헌제를 받지 않음을 선포하신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정당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으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즐거움에 불과했다. 즉, 마음과 정성이 없는 형식과 전통에 불과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의 양식이 고갈 되어 굶주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4:6). 끔찍한 가뭄(4:7-8)과 해충으로 인한 황폐(4:9), 그리고 전염병(4:10)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릇되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다.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찾아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다. 그들의 영적 타락과 영적 잠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

진실 된 제사가 아닌, 인본주의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린 까닭이다. 흉년, 가뭄, 병충해와 전염병이 더 커졌음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 징계를 받으면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 일찍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생명과 나라를 잃는 끔찍한 징벌을 피했을 것이다.

때로는 영적 잠을 잘 수도, 잠깐 한 눈을 팔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으면 바로 돌이켜야 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묵상 중,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찢리고 불편하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대부분 이런 찢림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나의 영적 나태함과 죄악으로부터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신호이다. 영적 깊은 잠을 자는가? 형식적인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없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말씀 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도킹해야 한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다.
그토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되기까지 내 안에서는 마치
나침반 바늘처럼 얼마나 이리저리 흔들리는지 모른다.

물론 그러다가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흔들리던
나침반 바늘이 어느새 그분에게 딱 고정되어 순복한다.
수없이 반복했지만 늘 쉽지 않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거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제안이 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놀라운 새 일과 새 반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열정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계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가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계획에
금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 그래서 기대하는 대로 되면
쉽게 흥분하고 안 되면 금세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완전한 계획에 따라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개개인들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동참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약속하신 그분의
'살롬과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킹(docking)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대를 향한 큰 경륜과
그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구체적인 계획과 뜻 안에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돌파와 도약'이
일어난다.

크고 대단한 일이어서 돌파와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돌파와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먼저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경영자가 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의 경영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도킹해야 한다.

오래전 함께 동역하던 중동의 사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였다.
내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눈다고 하면서 해준 말이 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적이다.”

내용인즉 좋아 보이는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최상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나누어준 것이다. 좋아 보이는 많은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일들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가장 위험한 일이 된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도킹해야 한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 일로
나아갈 수 있다.

윤성철, 『하나님의 반격』



가야 16강 9강

“...가야 16강 9강...”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